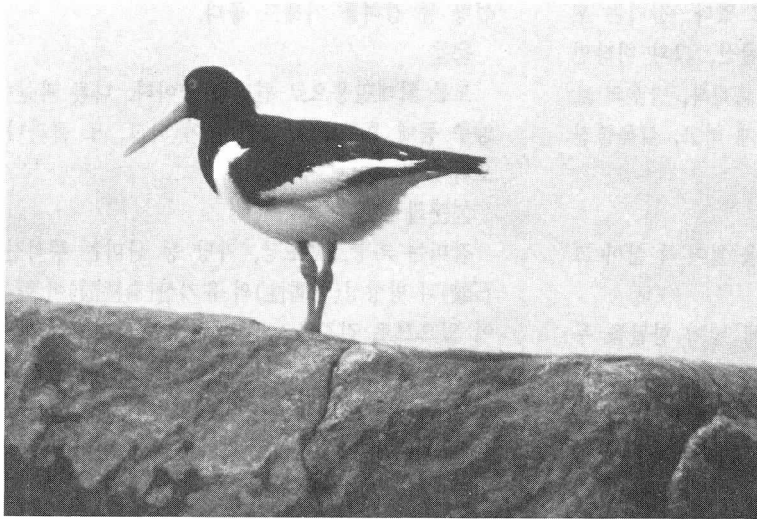


검은머리 물떼새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英名 Oystercatcher

흑백의 조화로운 색깔에 부리와 다리가 선홍색인 검은머리 물떼새는 암수가 같은 모양의 아름다움을 갖춘 희귀조류이다. 이 새의 국내 서식생태에 대해서는 과거 20여년전만해도 드물게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가끔 나타나는 귀한 새로만 알려져 왔으나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군사지역인 강화도의 대송도와 소송도에서 번식을 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텃새로 지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북지역인 평안북도 정주군 대감도와 운무도에서도 번식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기록상으로 볼 때 서해안에서 번식함을 알 수가 있다.

실제 조류탐사를 하다보면 서해안의 작은 돌섬이다. 무인도에서는 번식기인 5, 6월에 가끔 새들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번식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마다 군산앞 외항의 갯벌과 남해안의 비금도나 도초도의 갯벌에서도 무리로 관찰되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일정하지 않다.

통상 도서지방의 갯바위와 간조시 물빠진 갯벌을 배회하며 작은 물고기, 게, 수서동물을 잡아먹고 생활을 하는데 번식기 이외에는 군서생활을 즐기는 생태를 지니고 있다.

번식기는 5월 초순.

해안가에 즐비한 바위위의 오목한 곳을 찾아 성냥개비같은 작은 나무가지를 몇개 물어다 볼품없는 산좌를 만든다음 갈색바탕에 점무늬가 있는 알을 3개내외를 낳아 암수가 포란을 하나 주로 암컷이 전담한다.

포란기간은 22일 내외이고 어린새는 솜털로 덮혀 있으며, 이내 어미새를 따라 등지를 떠나게 되고 물떼새 특유의 종종걸음을 걸으며 생존을 익힌다.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를 하는 새이나 적은 숫자가 생존하고 있고 확실한 번식지는 캄차카반도, 펜진만, 중국북부, 한반도의 서해안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100여년전 일본에서도 번식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겨울철새로만 도래하는데 주서식지인 갯벌의 오염이 이 새들의 서식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각별한 환경보전이 우려되는 종이다. 1917년 전라남도 영산강 하류의 작은 섬에서도 번식했던 기록은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982년 종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지정되어 있다.